

실직 가구주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이 가구주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

가족 지지의 완충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유성렬·정기원*

IMF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실업과 그로 인한 가계 소득의 감소가 실직을 경험한 당사자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심리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업과 소득의 감소는 실직 당사자의 심리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실직의 부정적인 역할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실직이나 소득감소라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지역적으로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검증함에 있어서 주로 완충효과의 존재여부에 관심을 둔 반면, 그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비교적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표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실업이나 소득 감소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부담감이 실직 가구주들의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LISR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누적 모형(*stacked model*)을 통한 LISREL의 적용을 통해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수행하는 완충효과의 존재

* 유성렬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정기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전임강사)

여부를 검증하고 가족 지지의 수준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의 영향력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은 가구주 자신의 불안과 우울증적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우울증적 정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LISREL 방법의 유용성과 본 연구결과가 지니는 정책적 의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1. 서론

고금리와 긴축을 골자로 한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대량실업과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중산층이 줄어들고 서민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짐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경제·사회적 혼란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직으로 인한 급격한 가정경제의 악화와 가정의 경제적 결핍상황이 개인 및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이에 관한 연구들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들은 가족의 경제적인 결핍 환경이 가족원의 심리적 갈등과 위기, 가족해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이라는 데 일치하고 있다(오경자, 1998; 조성희, 1999). 또한 실업 및 빈곤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스트레스 모형을 적용한 일련의 연구들은 동일한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한 경우라도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가족원들의 긍정적 적응과 회복의 기회가 증가한다고 하였다(신준섭·이영분, 1999).

그러나 실직이 개인 및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는 실직의 여부가 주요 독립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실직을 경험하였는가의 여부가 당사자와 가족원의 심리상태에 주는 영향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Kessler et al., 1987). 그러나 실직자 및 그 가정이 겪는 어려움의 많은 부분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고, 실직가정이 모두 비슷한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실직 경험 자체를 독립변인으로 조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예를 들어, 신준섭·이영분, 1999; 조성희, 1999)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대부분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잘 정리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증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실직 경험 혹은 실직 가구의 경제적 결핍 상태가 실직 가구주나 가족원의 심리 상태에 주는 영향을 중재 혹은 완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준섭·이영분(1999)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오경자(1998)의 연구는 실직 상황에 대한 대처과정의 모형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신준섭·이영분(1999)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도에 따라 스트레스가 실직자들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만을 보여줄 뿐, 그 영향의 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가구주가 실직한 가정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실직 가구주의 평가가 자신의 심리 상태에 주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연구 결과를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실직 가구주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감이 가구주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LISREL을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의 적용을 통한 실증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가족 지지의 정도에 따라 경제적 압박이 주는 영향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1) 실직에 따른 가정경제의 악화가 가구주에게 미치는 영향

삶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원의 상실이 스트레스 유발 요인(*stressor*)이 된다고 할 때(Liem & Liem, 1988), 가정의 재정적 손실 및 실직자 자신

의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실직은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특히 실직과 이에 따른 가계 소득의 감소라는 스트레스 요인은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eorell 외(1975)의 연구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사망이나 사고 등을 당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essler 외(1987; 1988)는 실직을 당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anxiety*)과 우울증적 증세(*depression*)를 더 많이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직을 당한 경우나 심각한 가계 소득의 감소를 겪은 가장들은 편집증적 증상(*paranoia*)과 적대감(*hostility*) 등의 심리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현상은 실직을 당한 직후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정경제의 위기를 겪는 가장들이 미래를 보는 시각은 매우 비관적으로 되며(Galambos & Silbereisen, 1989), 악화된 가계 수지를 맞추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희생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심리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Elder et al., 1992).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실업이나 심각한 소득의 감소가 가장에게 주는 영향이 육체적, 정신적 영역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구 사회뿐 아니라 IMF 체제하에서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신준섭·이영분, 1999; 장혜경·김영란, 1999; 조성희, 1999).

실직이나 급격한 소득의 감소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현상들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가정 경제의 악화를 야기하는 현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실업 등의 고용 불안정과 소득의 감소(*economic deprivation*)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의 고용 불안정은 회사의 부도나 공장의 폐쇄, 또는 정리해고 등으로 인한 실직뿐 아니라, 비자발적인 퇴직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되는 것이 가계 소득의 감소로써, 이는 우선적으로는 가정 내의 재정적인 자원(*financial resources*)이나 소득의 손실을 의미하지만, 이와 함께 동반되는 현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가정의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실업 등의 고용 불안정과 소득의 감소는 가정경제의 악화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실직이나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적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감소를 경험한

가정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우선 소비를 줄임으로써 줄어든 소득에 맞는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만일 소비를 줄일 수 없을 경우에는 보유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출 등을 통해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게 된다(Elder et al., 1994). 따라서 소비 수준을 줄이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거나 소득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가구의 소유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감소가 가구주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에게 주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의 감소가 장기화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여유자산이 부족하거나, 혹은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지출을 어렵게 할 정도로 큰 폭의 소득감소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매우 심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 소득의 감소가 심리 상태에 주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에는 실직 경험 혹은 소득 감소폭 등의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가정경제의 악화를 경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심각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관적 지표로서의 경제적 부담감(*economic pressure*)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가정경제의 형편에 대한 평가와 가계 재정과 관련된 걱정, 가정경제의 악화로 인해 취해야 하는 조정(*adjustments*), 그리고 미래의 가계 상태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실제 Lorenz 외(1994)의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을 겪고 있는 가정에서 가구주의 심리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소득감소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실직이나 소득의 감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험을 한 당사자가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사회적 지지의 역할

사회적 스트레스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형태나 정도의 악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완충 기제(*buffering mechanism*)에 따라 실업 등이 가져오는 영향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주변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실직이나 가계소득의 감소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중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Kessler 외(1988)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실업으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스트레스 이론에서 사회적 지지가 수행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다(Milne, 1999). 첫 번째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개인의 심리상태에 직접적인 영향(*main effect*)을 준다는 것이다. 즉, 배우자나 친척, 혹은 친구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를 받아들이는 실직자들은 그렇지 않은 실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과 빈도의 정서적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요인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중재 혹은 완충하는 역할(*moderating effect*)을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실직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안녕감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스트레스 요인이 개인의 심리 상태에 주는 영향의 정도는 사회적 지지를 받는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된다.

특히 스트레스에 대해 완충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를 가족으로부터 받을 경우에 그 영향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Kessler et al., 1988; Liem & Liem, 1988). 이와 관련하여 신준섭·이영분(1999)은 사회적 지지를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 관계로부터 제공되는 지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를 맺는 타인이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지지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수행하는 역할이 주효과를 지니는지 아니면 완충효과를 지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적 지지는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주효과를 지니는 반면, 자기 존중감에 대해서는 주효과와 완충효과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반면, 알코올 의존이나 심리적 병리증후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특정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개인의 자기 존중감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친구나 타인으로부터의 지지보다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특정 변인의 완충효과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완충효과를 지닐 것으로 추정되는 변인(매개변인)과 주요 독립변인을 곱한 값(*product term*)이 두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주는 변인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분석의 과정에서는 상호작용변인을 제외한 관련 변인들이 먼저 회귀분석에 투입되고, 그 다음 단계

로 상호작용변인이 다른 변인들과 함께 회귀분석에 투입된다. 분석 결과 상호작용변인의 회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기 전의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R^2 와 투입한 후의 회귀분석의 R^2 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때, 매개변인은 완충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상호작용변인의 회귀계수만으로는 완충효과의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없다(Aiken & West, 1991). 일반적으로 양(+)의 부호를 갖는 상호작용변인의 회귀계수는 매개변인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작용변인 구성에 사용된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가질 수 있는 다음 세 가지의 상황을 구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매개 변인이 0과 1로 된 모조변인(*dummy variable*)인 경우, 우선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이 매개변인의 값이 0인 집단과 1인 집단에서 모두 정적인 효과(*positive effect*)를 지닐 수 있다. 두 번째로 독립변인의 영향이 매개변인의 값이 0인 집단에서는 부정적 효과(*negative effect*)를, 매개변인의 값이 1인 집단에서는 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세 번째로 그 영향이 두 집단 모두에서 부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준섭·이영분(1999)은 사회적 지지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표본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집단에서의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안녕감 사이의 단순상관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보다 자세히 관찰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스트레스와 자기 존중감간의 단순상관계수가 -.18인 반면,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44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상관계수의 성격상 이러한 분석은 스트레스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effect*)을 비교하였다기보다는 두 변인 사이의 단순 상관(*zero-order correlation*)의 차이를 비교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따라서 관련변인들을 통제된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대한 영향이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3. 연구 방법

1)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1998년도 전국 실업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실업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기존 실업대책의 개선 및 향후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생산, 실업대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1998: 3). 전국의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이 조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된 조사구를 행정구역에 따라 6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동, 기타 시의 동, 시의 읍·면, 군의 읍, 군의 면으로 5개 층화하고, 인구주택총조사구를 2개 또는 3개씩 통합하여 조사구를 설정하여 층별 크기의 측도에 따라 조사구를 비례배분한 후, 추출단위 조사구를 크기의 측도에 의한 확률비례통계추출법으로 조사구를 선정하고 있다.¹⁾

이 조사의 자료는 위와 같이 표본추출된 조사지역의 모든 가구를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면접조사에 의해 수집되었다. 조사된 가구는 모두 4,338가구였는데, 조사대상 가구 중에서 가구원 중 실업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실업가구로 정의한 후 실업가구조사와 실업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조사를 하였고, 가구원 내에 실업자는 없으나 구직경험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나 IMF 이후 직장변동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비실업가구로 분류하여 가구조사와 해당 개인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졌다.²⁾

본 연구에서는 실업가구 중에서 가구주가 실업 상태에 있는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에 관한 자료는 실업가구 조사에서, 실직 가구주의 심리 상태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변인은 실직자 개인조사에서, 실직자에 관한 인구학적 변인들은 심층가구원조사에서 추출되었다. 이들 가운데 자료분석 과정에 사용된 변인들에서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887명의 실직 가구주들이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1998)의 보고서에 조사설계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2) 실업가구 및 비실업가구의 분류, 조사의 구체적 내용 등과 같은 조사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박경숙(1999)의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기존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지니는 일반적 특성 가운데 하나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 지역에서 표집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일반화의 범위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본 연구는 그 자료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2) 변인

(1) 실직 가구주의 심리 상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실직 가구주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불안, 우울 증적 정서와 미래 기대를 사용하였다. 실직 가구주의 불안은 “무언가 모르는 공포감에 휩싸일 때가 있다”(mind 1),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된다”(mind 2), “가슴이 두근두근 거릴 때가 있다”(mind 3)와 “안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mind 4)로 측정하였다. 우울증적 정서는 “허무한 느낌이다”(mind 5), “외롭다”(mind 6), “죽고 싶은 기분이다”(mind 7)의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척도로 대답하였다. 실직 가구주의 미래에 대한 기대는 “예전과 보수가 비슷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will 1)와 “열심히 노력하면 예전의 생활수준을 조만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will 2)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응답자들은 1(전혀 아니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척도로 대답하였다.

(2)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경제적 부담감은 실직가구조사에 포함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때가 있다”(EP 1)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EP 2)에 대한 항목에 대해 실직 가구주들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미취업상태가 계속될 때 귀댁은 현재의 생활수준을 얼마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습니까?”(EP 3)의 문항에 대해서는 1(앞으로 1개월 미만)에서 6(2년 이상)의 척도로 대답하였다.³⁾

(3)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가족 지지도에 관한 자료는 실업가구원 조사로부터 얻어진 “배우자는 충분히 이해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었으며, 용기를 주었다”, “자녀들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았다”, “가족들이 차가운 반응을 보여 안타까웠다”의 세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답을 합산하여 가족지지도 척도를 산출하였다. 이 세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범위에서 응답하였는데, 가족 지지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 두 번째와 세 번째 문항의 경우는 역으로 점수화하여 세 문항의 응답을 합산하였으며, 이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61로 나타났다.⁴⁾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도의 변인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며, 그 구분 기준은 신준섭·이영분(1999)의 방법을 적용하여 가족 지지도 척도의 중앙값을 정점으로 이 값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실직 가구주는 가족의 지지를 적게 받는 집단에, 중앙값 이상의 점수를 가진 가구주는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밖에 본 연구에서는 실직 가구주의 교육정도와 성별을 통제변인(*control variables*)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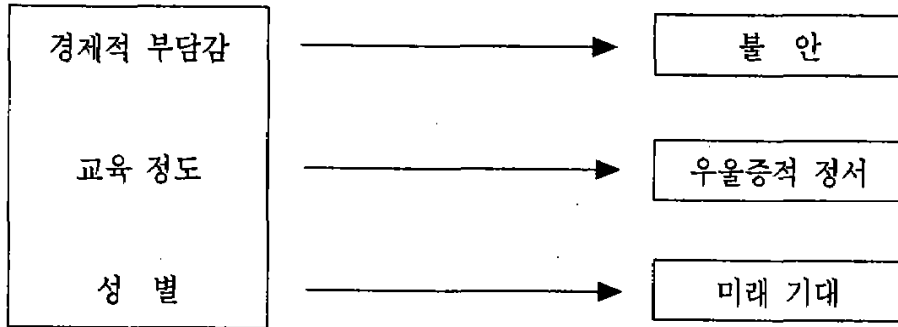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직 가구주가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감이 실직 가구주의 불안, 우울증적 정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LISREL (Version 8)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그

3)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를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다.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LISREL 프로그램에서는 각 지표들의 측정 오차(*measurement errors*)를 계산하고 각 요인과 지표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계수(*factor loading*)의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함으로써 각 지표가 해당 요인에 적합한 지표인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도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연구 결과에 대한 영향을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족 지지도 변인은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척도로만 사용되었고 실제 LISREL 분석과정에서는 생략되었기 때문에 모수 추정치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이 심리 상태에 주는 영향



림 1)과 같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직 가구주가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감은 심리적으로 불안과 우울증적 정서를 증대시키는 반면, 미래에 대한 기대에는 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되고 있다. 또한 실직자의 교육정도는 당사자들의 심리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여성 실직 가구주보다는 남성 실직 가구주들이 경제적 압박감에 더 취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기존의 회귀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경로분석에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변인들이 오차 없이 측정되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변인들은 측정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변인들간의 인과관계의 크기에 대한 추정에 있어서 오류를 야기하게 된다(Kenny, 1979). 이러한 측정오차의 문제는 경로 분석의 과정에 요인분석의 논리를 적용할 경우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즉 요인분석의 논리에 따르면, 여러 개의 변인들이 하나의 요인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변인들은 관련 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야 하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해당 요인과 관련하여 각 지표가 지니는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Maruyama & McGarvey, 1980). 이러한 방법은 각 지표의 분산(variance)을 요인과 관련이 있는 부분과 오차로 인한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로분석에 요인분석의 기법을 적용하면 측정오차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며, LISREL은 이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분석도구이다.

LISREL에서는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각각의 변인들과 관련 요인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이론적 요인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이다.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이 다중 정상분포(multivariate normality)의 가정을

만족할 경우, 최대가능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함으로써 각각의 모형에서 설정된 관계들에 대한 모수(*parameters*), 즉 각 변인들과 관련 요인들간의 요인계수(*factor loadings*)들과 요인과 요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계수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

LISREL이 갖고 있는 다른 하나의 강점은 서로 다른 집단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동일한 모형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모형이 두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이다. 이 경우 연구자는 연구 모형 내에서 설정된 특정 변인들간의 관계가 두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가족 지지도의 중앙값을 정점으로 표본을 두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그림 1>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을 두 집단에 동시에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감이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두 집단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추정한다. 이 경우 각 집단에서의 영향의 크기는 달리 추정된다. 그리고 나서 두 집단에서 경제적 부담감이 불안에 주는 영향의 크기가 같을 것이라는 제한(*constraints*)을 모형에 부과하여 모수를 추정한다. 이 때에는 경제적 부담감이 불안에 주는 영향은 두 집단에서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두 경우에 제시된 χ^2 를 비교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감의 불안에 대한 영향의 크기가 두 집단에서 같은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만약 그 크기가 두 집단에서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 즉, χ^2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완충효과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경제적 부담감이 심리상태에 주는 영향이 두 집단에서 같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적 지지는 완충효과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두 집단에서의 실제 그 영향의 크기, 즉 계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부담감이 불안에 주는 영향이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4. 연구 결과

1)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이 심리 상태에 주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모형의 분석에 앞서 모형에 나타나 있는 이론적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도에 대해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에 따르면, 모든 지표들의 요인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미래 기대와 관련된 지표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표준화된 요인계수들은 .7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기대의 경우 2개의 지표의 요인계

<표 1> 측정지표들의 요인계수 5)

이론적 요인	측정지표	표준요인계수
불안	mind 1	.87
	mind 2	.81***
	mind 3	.95***
	mind 4	1.00***
우울증적 정서	mind 5	.95
	mind 6	.94***
	mind 7	.97***
미래기대	will 1	.54
	will 2	.64**
경제적 부담감	EP 1	.79
	EP 2	.70***
	EP 3	.88***

주: ** p < .01, *** p < .001

- 5) <표 1>에서 각 이론적 요인들을 나타내는 첫 번째 지표들은 준거지표(*reference indicator*)로서 통계적 유의도 표시가 주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지표들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불안, 우울증적 정서, 미래기대, 경제적 부담감 등의 요인들은 이론적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측정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측정단위(*metric* 혹은 *scale*)를 부여하기 위해 각 요인의 첫 번째 지표들의 요인계수를 1로 부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통계적 유의도는 산출되지 않는다(Maruyama and McGarvey,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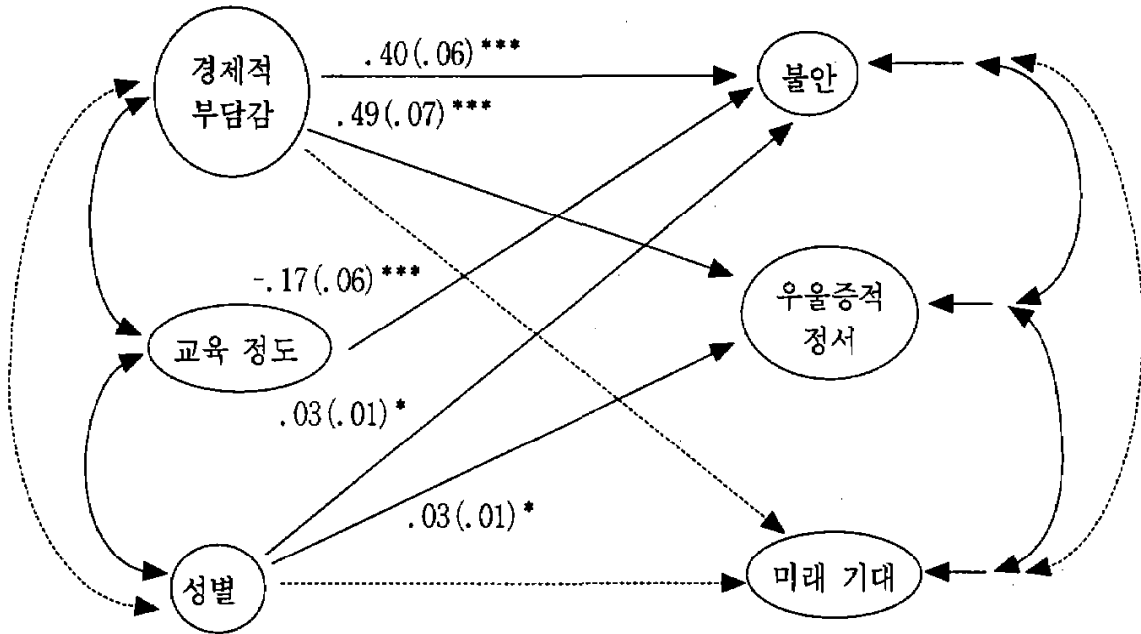
수가 각각 .54와 .64로 다른 지표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지표들이 비교적 각각의 연관된 이론적 요인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yu and Mortimer, 1996).

각각의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론적 모형이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모형 합치도에 대한 χ^2 검증에 따르면 이론적 모형이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만, 이 결과는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RMSEA를 비롯한 다른 합치도 지표들은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RMSEA는 .035로 .05보다 작으며, GFI, AGFI, NFI와 NNFI도 모두 .95를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이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매우 잘 부합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이순목, 1990; Bollen & Long, 1993).

실직 가정의 가구주가 경험한 경제적 부담감이 가구주의 불안 상태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의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은 자신의 심리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경제적 부담감은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부담감이 높을수록 실직 가구주는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였다. 반면에 실직 가구주의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당사자는 낮은 수준의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남성 가구주가 여성 가구주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겪고 있었다. 회귀분석에서의 R^2 와 유사한 개념으로서의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에 따르면, 불안의 변량 가운데 위의 3개의 변수가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적 정서의 경우에도 경제적 부담감은 불안에 대한 영향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높은 수준의 경제적 부담감을 경험하는 실직 가구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증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가구주의 교육 정도는 우울증적 정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여성 실직 가구주보다는 남성 실직 가구주가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실직 가구주에게 있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은 여성 실직 가구주의 경우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울증적 정서에 대한 다중상관자승치는 .25로서

〈그림 2〉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이 심리 상태에 주는 영향에 관한 분석



χ^2 (자유도) = 136.65 (63), $p < .0001$; $N = 887$

RMSEA = .036

GFI = .98;

AGFI = .96

NFI = .96;

NNFI = .97

다중상관자승치 : 불안 = .24; 우울증적 정서 = .25; 미래기대 = .03

주 : 점선은 독립변인의 영향이 $\alpha < .10$ 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그림에 제시된 구조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계수의 표준오차이다.

불안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에 의하면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은 미래기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Galambos & Silbereisen(198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지만, 영향력은 단지 $\alpha < .10$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직 가구주의 성별의 영향도 $\alpha < .10$ 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직 가구주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은 불안과 우울증적 정서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관련 연구들의 결과와 합치되는 것으로서 실직이나 소득의 감소라는 객관적인 현상뿐 아니라, 실직 가구주가 경험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도 불안이나 우울증적 정서와 같은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 결과는 실직이나 심각한 소득의 감소가 주는 영향이 경제적 부담감이라는 요인을 통해 매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 가족지지도의 완충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이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수행하는 완충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가족 지지도 척도를 구성하고 그 중앙값을 기점으로 표본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방법은 연속변인의 형태로 구성된 가족 지지도를 비연속변인으로 바꿈으로써 정보의 손실을 야기하는 단점이 있으나, 표본을 두 집단으로 구분함으로써 가족 지지도의 역할을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가족 지지도의 정도에 따라 나뉘어진 두 집단을 대상으로 LISREL의 입력자료를 각각 산출하여 <그림 1>의 이론적 모형을 동시에 적용하는 누적모형(*stacked model*)의 형태로 LISREL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누적 모형은 동일한 이론적 모형을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집단에 동시에 적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다. 이때에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이 심리 상태에 주는 영향은 두 집단의 자료에 적합하게 추정될 수 있게 하였다. 즉 <그림 2>에 나타난 구조계수(*structural coefficients*)들을 두 집단에서 상이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먼저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이 불안에 주는 영향이 두 집단에서 동일한 값을 갖도록 모형에 제한(*constraint*)을 줌으로써, 이 경로(*path*)에 대한 모수의 추정치가 두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오도록 하였다. 이렇게 기존 모형에 제한을 둘 경우, 부여된 제한의 수만큼 자유도가 증가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제한이 주어진 모형의 χ^2 의 값은 제한을 주기 전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 모형과 두 번째 단계에서 추정된 모형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두 번째 단계에서의 모형은 경제적 부담감이 불안에 주는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가 두 집단에서 각각 추정되는 반면, 세 번째 단계에서의 모형에서는 이 계수가 두 집단에서 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세 번째 단계의 모형에서는 두 번째 단계의 모형과 비교해 볼 때 1개의 자유도를 더 얻게 된다.

이 경우 두 번째 단계에서의 추정과정에서 산출된 χ^2 의 값과 세 번째 단계의 추정과정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의 차이는 χ^2 의 분포를 따르게 되며, 이에 해당하는 자유

도는 1이 된다. 이 χ^2 값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χ^2 검증은 두 모형이 동일하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이 되며, 따라서 만일 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할 경우, 두 모형은 자료 부합도의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론적으로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이 불안에 주는 영향은 가족 지지도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χ^2 값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χ^2 검증의 결과, 두 모형이 자료 부합도의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감의 불안에 대한 영향이 두 집단에서 동일하다는 제한은 세 번째 모형의 자료 부합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며, 이는 곧 그 영향이 두 집단에서 같지 않음을 의미한다. 만일 이런 결과를 얻게 되면, 두 번째 모형에서 서로 달리 추정된 경제적 부담감의 불안에 대한 영향의 크기를 통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가족 지지도가 수행하는 완충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로 우울증적 정서와 미래에 대한 기대의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적용하여 가족 지지도의 정도에 따라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이 가구주의 우울증적 정서와 미래에 대한 기대에 주는 영향이 달리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압박감이 가구주의 심리 상태에 주는 영향이 가족 지지도의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가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모형 A는 <그림 1>에서 사용된 이론적 모형과 동일한 모형을 바탕으로 가족 지지도가 높은 집단($n=215$)과 낮은 집단($n=297$)에서 경제적 부담감의 심리 상태에 대한 영향이 각각 상이하게 추정되도록 한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산출된 χ^2 의 값과 경제적 부담감이 불안에 주는 영향이 두 집단에서 동일하게 추정되도록 제한한 모형(모형 B)에서 산출된 χ^2 의 값을 비교할 경우, 그 차이는 1.92이며, 이에 해당하는 자유도는 1로 나타났다. 이 값을 바탕으로 한 χ^2 의 검증에 따르면,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두 모형이 동일하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실제로 가족 지지도가 높은 집단에서의 경제적 부담감의 불안에 대한 영향은 .27($SE=.10$)인 반면, 가족 지지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56($SE=.16$)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z=1.537, p>.05$).⁶⁾ 이러한

6) 상호 독립적인 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산출한 회귀계수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비교는 Cohen &

〈표 2〉 LISREL의 누적 모형간의 χ^2 검증

모형	χ^2	df	모형 A의 χ^2 와 모형 B, C, D의 χ^2 의 차이	df의 차이	유의도
모형 A	167.72	126			
모형 B	169.64	127	1.92	1	N. S.
모형 C	171.77	127	4.05	1	p < .05
모형 D	167.76	127	.04	1	N. S.

주) 모형 A: 경제적 부담감의 심리상태에 대한 영향이 두 집단에서 달리 추정됨.

모형 B: 경제적 부담감의 불안에 대한 영향이 두 집단에서 동일한 것으로 제한.

모형 C: 경제적 부담감의 우울증적 정서에 대한 영향이 두 집단에서 동일한 것으로 제한.

모형 D: 경제적 부담감의 미래 기대에 대한 영향이 두 집단에서 동일한 것으로 제한.

결과는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이 불안에 주는 영향이 가구주가 받는 가족 지지도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울증적 정서의 경우에는 불안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에 따르면,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의 우울증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가족 지지도의 정도에 따라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제한을 준 모형(모형 C)에서의 χ^2 의 값은 두 집단에서의 영향이 달리 나타날 것이라는 모형(모형 A)의 값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 C에 부과한 제한(두 집단에서의 영향이 동일할 것이라는 제한)으로 인해 χ^2 의 값이 모형 A의 χ^2 의 값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모형 A와 모형 C는 동일한 모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이론적으로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은 가구주가 받는 가족 지지도의 정도에 따라 우울증적 정서에 주는 영향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실제 모형 A에서 얻어진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의 우울증적 정서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구조 계수는 가족 지지도가 낮은 경우 .80(SE=.18)이었던 반면, 가족 지지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31(SE=.11)로 나타났다. 이 2개의 구조 계수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의 결과도 경제적 부담감의 우울증적 정서에 대한 영향이 두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z=2.323$, $p<.05$). 가족의 지지도가 낮은 실직 가구의 가구주는 그

Cohen(1983)이 제시한 $z = \frac{b_1 - b_2}{\sqrt{SE_{b_1}^2 + SE_{b_2}^2}}$ 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렇지 않은 가구주들에 비해 경제적 부담감이 우울증적 정서에 주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의 차이는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지지도가 높은 가정의 가구주가 경제적 부담감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가정의 가구주의 우울증적 정서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으나($t=2.74$, $p<.01$), 가족의 지지도가 낮은 가정의 가구주와 비교해 볼 때 그 영향의 정도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 지지도의 정도에 따른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이 가구주의 미래기대에 주는 영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 A와 모형 C의 χ^2 의 값의 비교 결과 두 모형이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경제적 부담감의 미래 기대에 대한 구조 계수는 가족 지지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08$ ($SE=.08$, $t=-.98$), 가족 지지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11$ ($SE=.09$, $t=-1.13$)로 두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1998년도 전국 실업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실직 가구주가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감이 실직 가구주의 심리 상태에 주는 영향과 이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경제적 부담감의 영향을 중재하는가의 여부를 LISR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직 가구주가 겪는 경제적 부담감이 가구주의 불안과 우울증적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직 가구의 가구주가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의 정도가 높은 경우 가구주가 경험하는 불안이나 우울증적 정서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구주가 생각하는 가정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경제적 부담감과는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경제적 부담감이 가구주의 심리상태에 주는 영향은 가구주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본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특히 가구주가 가족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가 낮은 경우, 실직 가구주가 경험하는 우울증

적 정서에 대해 경제적 부담감이 주는 영향은 가족 지지도가 높은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LISREL을 사용하여 산출한 영향력의 두 집단간의 차이는 2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직 가구주들이 생각하는 가정 경제 상황의 심각성이 실직자들의 심리 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족 지지도의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실직 가구주의 경제적 부담감이 가구주들의 불안에 주는 영향은 가족 지지도의 정도와는 별 관계없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울증적 정서의 경우와는 달리, 실직 가구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가구주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부담감에 의해 일정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는 실직자들이 불안을 느끼는 대상이 우울증적 정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울증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들은 본질적으로 실업자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는 반면, 불안의 지표들이 나타내는 심리 상태는 다소 구체적인 신체적·심리적 반응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이 실직자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에 대한 영향은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가 완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경제적 부담감으로 인해 야기되는 실직 가구주의 신체적·심리적 반응에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우울증적 정서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업의 영향에 관한 연구와 관련한 학문적 함의와 실직가구의 가족기능 강화와 관련한 실천적 함의를 함께 지니고 있다. 학문적 함의는 실직이 개인에게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과 이 과정에서의 가족지지의 완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라는 점과 특정변인의 완충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LISREL을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이 갖는 효용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그리고 실업이 경제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직자의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복합적 양상을 보이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대책에서 사회복지적 개입전략이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가 찾아진다. 이러한 학문적 및 실천적 함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실직에 관하여 실시된 많은 연구들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업 유형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도 실직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나, 그 결과를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실업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업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화의 범위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직자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가족 기능 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실업이라는 현상의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실직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실직 경험 자체 혹은 실직으로 인한 가계 소득의 감소가 주요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실직 경험이나 가계 소득의 감소가 실직자의 심리 상태에 주는 영향은 실직자가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존재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실직자가 실직이나 가계 소득의 감소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험이 실직자의 심리 상태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직이나 그로 인한 가계 소득의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즉 경제적 부담감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실직이나 가계 소득의 감소는 실직자의 심리 상태에 심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처 자원의 존재 여부와 이에 대한 실직자 자신의 주관적 평가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실직이나 소득 감소의 경험보다는 실직으로 야기된 경제적 부담감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경제적 부담감은 실직자들의 불안과 우울증적 정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실직이나 소득 감소와 경제적 부담감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실직 가정에서의 경제적 부담감의 주요 원인은 실직과 그로 인한 소득의 감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직과 가계 소득의 감소가 실직자의 심리 상태에 주는 영향은 실직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을 통해 매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Lorenz et al., 1994).

이러한 결과는 실직자들의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즉 실직이라는 경험이 심리 상태에 주는 영향이 실직자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감을 통해 매개된다면, 이 연결 고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실직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실직자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실직이라는 현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실직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즉 실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현물 급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료 서비스, 여성 실직 가구주의 경우에는 구직기간 동안의 탁아서비스 등의 제공은 실직자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직이나 그로 인한 소득의 감소가 심리 상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경감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실직자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가족 지지의 역할은 실직자들을 위한 지지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의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는 경제적 부담감이나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우울 등의 심리 상태에 주는 영향을 완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실직자들을 위한 지지 프로그램에서는 실직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가족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족 구성원 전체가 가구주의 실직이라는 현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변인의 완충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LISREL을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이 갖는 효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에 중재변인을 곱한 값을 상호작용변인으로 회귀 분석에 투입하는 절차를 사용하여 중재변인의 완충효과를 검증하였다(신준섭·이영분, 1999).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완충효과의 존재여부는 판명할 수 있으나 완충효과의 구체적인 내용, 즉 중재변인의 정도에 따라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LISREL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과 누적 모형의 응용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매우 유효하여 중재변인에 의한 완충효과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검증뿐 아니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

가 중재변인의 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을 갖고 나타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실의 모습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박경숙. 1999. "여성과 남성 실업 가구주의 실업실태와 실업대책활용의 비교 및 정책제안." 《한국사회복지학》 제37호. pp.143~170.
- 신준섭·이영분. 1999. "사회적 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7호. pp.241~270.
- 오경자. 1998. "여실직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 《1998년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엄 발표집》. pp.67~95.
- 이순목.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성원사.
- 장혜경·김영란. 1999. 《실업에 따른 가족생활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조성희. 1999. "실직 이후 부부의 이혼 가능성." 《가족과 문화》 제11집 2호. pp.22~4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1998. 《실업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최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 Aiken, Leona S., and Stephen G. West.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 A.: Sage Publications.
- Bollen, Kenneth A., and J. Scott Long.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 A.: Sage Publications.
- Cohen, Jacob, and Patricia Cohen.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2nd e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lder, Glen H., Jr., Rand D. Conger, E. Michael Foster, and Monika Ardel. 1992. "Families under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Family Issues* 13(1). pp.5~37.
- Elder, Glen H., Jr., Elizabeth B. Robertson, and E. Michael Foster. 1994. "Families under Economic Pressure." in Rand D. Conger and Glen H. Elder, Jr. (eds.).

-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New York: Aldine de Gruyter. pp. 79~104.
- Galambos, Nancy L., and Rainer K. Silbereisen. 1989. "Income Change, Parental Life Outlook, and Adolescent Expectations for Job Succ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pp. 141~149.
- Kenny, David A. 1979. *Correlation and Caus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 Kessler, Ronald D., James S. House, and J. Blake Turner. 1987. "Unemployment and Health in a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8. pp. 51~59.
- Kessler, Ronald C., J. Blake Turner, and James S. House. 1988.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in a Community Survey: Main, Modifying, and Mediating Eff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pp. 69~85.
- Liem, G. Ramsay and Joan Huser Liem. 1988. "Psychological Effects of Unemployment on Work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 pp. 87~105.
- Lorenz, Frederick O., Rand D. Conger, and Ruth Montague. 1994. "Doing Worse and Feeling Better: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Economic Hardship." in Rand D. Conger and Glen H. Elder, Jr. (eds.).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New York: Aldine de Gruyter. pp. 167~186.
- Maruyama, Geoffrey, and Bill McGarvey. 1980. "Evaluating Causal Models: An Application of Maximum-Likelihood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vol. 87. pp. 502~512.
- Milne, Derek L. 1999. *Social Therapy: A Guide to Social Support Interventions for Mental Health Practitioners*. John Wiley & Sons: West Sussex, England.
- Ryu, Seongryeol, and Jeylan T. Mortimer. 1996. "The 'Occupational Linkage Hypothesis' Applied to Occupational Value Formation in Adolescence." in Jeylan T. Mortimer and Michael D. Finch. *Adolescents, Work, and Family: An Intergenerational Developmental Analysis*. Newbury Park, C. A. : Sage Publication.
- Theorell, T., E. Lind, and B. Floderus. 1975. "The Relationship of Disturbing Life-Changes and Emotions to the Early Development of Myocardial Infarction and Other Serious Illnesses."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4(4). pp. 281~293.

Effects of Economic Pressure among Unemployed Heads of Households An Empirical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s by Family Support

Ryu, Seongryeol (Social Welfare, Chonan University)

Cheong, Keywon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Taegu)

Since 1998 when economic assistance from IMF started, the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s of unemployment and drastic income loss on psychological functioning among the unemployed as well as their family members has increased. These studies have found that unemployment and drastic income loss following unemployment have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on the psychological outcomes such as anxiety and depression of the unemployed and their family members. Studies have also focused on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is process, and reported that depending on the levels of received social support, unemployment and income loss have differential effects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unemployed. However, these studies have several weaknesses. First, most of the related studies employed the data which were collected from limited regions of the country, which imposes limitations on the scope of the generalizability of research findings. Second,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these studies were mainly unemployment or income loss, which ignore the psychological evaluation by the unemployed of their family financial situations. Third, in analyz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most studies have focused mainly on showing the existence of moderating effects by social support. Consequently, the nature and role of social support remained unanalyzed and left to spec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conomic pressure experienced by family heads who were unemployed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based o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The findings showed that economic pressure has negative influence on anxiety and depressive feelings among the unemployed, and that the effect of economic pressure on depressive feelings were substantially higher among those who have received lower levels of social support from family members than that among those with higher levels of family support.